

그바르디올 잡은 맨시티... 2617억 '중앙 수비라인' 구축

이적료 1283억 원... 디아스 몸값 합치면 가장 비싸 "세계 최고 감독 아래서 기량 키우겠다" 포부 밝혀

우승을 하려면 공격보다는 수비가 강해야 한다는 게 축구계의 정설이다. 공격은 팬을, 수비는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 한다.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수비만 잘 되어도 패배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지게 된다. 수비가 탄탄할수록 선수 전체적인 심리가 안정이 되면서 공격수들은 마음 놓고 공격할 수 있게 된다. 수비는 모든 단체 경기 종목의 기본이라고 한다. 수비력이 좋은 선수일수록 대우를 비교적 잘 받는 편이다.

2022-23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축구협회(FA)컵 등 트레블을 달성한 EPL의 강호 맨체스터가 '가장 비싼 중앙 수비라인'을 구축했다. 지난 시즌과 같은 영광을 재현하며 UCL 타이틀을 방어하기 위해서다.

맨시티는 6월(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독일 분데스리가의 RB 라이프치히에서 요슈코 그바르디올(크로아티아)을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그바르디올은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철벽 수비를 펼쳐 최고 수비수로 평가받으며 크로아티아가 3위에

오르는 데 기여한 선수다. 계약 기간은 5년이며 이적료는 맨시티가 공개하지 않았으나 7700만 파운드(약 1283억 원)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역대 축구 수비수 이적료 2위에 해당하는 액수다.

맨시티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중앙 수비라인을 구축하게 됐다. 맨시티의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해왔으며 2023-24시즌에도 팀의 주력으로 될 전망이다. 후벵 디아스(포르투갈)의 추정 몸값은 축구 통계 사이트 트랜스퍼 마르크트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8000만 파운드다.

여기에 두 번째로 높은 추정 몸값을 자랑하던 그바르디올이 예상보다 높은 이적료로 맨시티 품에 안겼다. 디아스와 그바르디올의 몸값을 합치면 무려 1억57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2617억 원이나 된다.

다만 맨시티의 센터백 선수층이 두껍고 그바르디올이 왼쪽 풀백으로도 뛰 수 있는 만큼 그바르디올-디아스 센터백 라인 이 앞으로 맨시티의 주력으로 가동되리라

확신하기는 어렵다. 2002년생으로 21세인 그바르디올은 안정적인 수비 능력과 정확한 패스를 겸비한 센터백으로 주목받아왔다. 그바르디올은 자국 리그 디나모 자그레브에 이어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뛰었다.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한 경기 평균 패스 성공률 89.3%, 가로채기 1.4개, 경합 승리 6.9회를 기록했다.

리그가 달라 단순 비교에 큰 의미는 없지만 EPL에서 디아스가 기록한 수치에 전체적으로 뒤지지 않는다. 디아스는 지난 시즌 패스 성공률 92.7%, 가로채기 0.8회, 경합 승리 4.5회를 기록했다. 그바르디올은 득점력도 지녔다. 지난 시즌 맨시티와의 UCL 16강 1차전에서 골을 기록하는 등 지난 시즌 공식전에서 3골을 넣었다.

맨시티가 이번 여름 이적시장에서 크로아티아 선수를 영입한 것은 미드필더 마테오 코바치치에 이어 그바르디올이 두 번째다.

그바르디올은 "세계 최고 감독 아래서 기량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펠과르디올과 감독의 지도에도 기대감을 표했다. 그바르디올은 첼시에서 맨시티로 이적한 크로아티아 대표팀 동료 마테오 코바치치와 함께 뛰는 것에도 만족감을 표했다. **박병현기자 bhpark@skyedaily.com**



EPL 맨체스터 시티가 새 시즌을 앞두고 영입한 크로아티아 출신의 중앙 수비수 그바르디올. **로이터-연합뉴스**

임진희 고향 제주서 생애 첫 다승

제10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황유민은 분실구로 자멸

임진희가 고향인 제주도에 데뷔 이후 처음으로 한 시즌에 2승 이상을 거두는 기쁨을 누렸다.

프로 7년 차 임진희는 6일 제주의 블랙스톤 제주(파72-6626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제10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총상금 10억 원)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1개, 보기 3개를 묶어 2오버파 74타를 쳤다. 최종 합계 5언더파 283타를 친 임진희는 2위인 신인 황유민(4언더파 284타)을 1타 차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임진희는 5월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제패 이후 약 석 달 만에 시즌 2승,



임진희가 아이언 티샷을 하고 있다. **KLPGA**

통산 4승 고지에 올랐다. 우승 상금은 1억 8000만 원.

전날 3라운드를 2타 차 단독 선두로 마친 임진희의 이날 출발은 좋지 않았다. 퍼트가 흔들려 4번 홀(파3)에서 스리 퍼트 보

기를 기록했고 5번 홀(파4)에선 1.6m 퍼트가 왼쪽으로 비껴갔다. 임진희는 8번 홀(파5)에서 첫 버디를 잡았으나 9번 홀(파4)에서 티샷을 벅커에 빠뜨려 타수를 다시 잃었다. 그 사이 앞 조의 황유민이 전반에 만 버디 4개를 몰아치면서 임진희는 선두 자리를 내주고 2타 차 2위로 내려앉았다. 그러나 임진희는 무너지지 않았다.

황유민이 12번 홀(파4) 보기, 15번 홀(파4) 더블보기로 3타를 잃는 사이 임진희는 침착하게 파를 지켜 선두를 탈환했다. 황유민은 15번 홀에서 티샷한 공이 왼쪽 숲으로 날아가 분실구가 된 것이 뼈아팠다.

임진희는 한 타 차로 앞선 18번 홀(파5)에서 아이언 티샷으로 끊어가는 안전한 전략을 택했고 파 퍼트를 넣어 우승을 확정했다. **박병현기자 bhpark@skyedaily.com**

일본 피겨 스타 하뉴 밤 11시11분에 결혼

일본 피겨스케이팅 슈퍼스타 하뉴 유즈루(28사진)가 결혼 소식을 발표했다. 하뉴는 4일 밤 11시11분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혼인 신고를 했다"며 "앞으로도 최고의 스케이팅이 되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결혼 상대가 누구지는 밝히지 않았다. 하뉴는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에서 2개 대회 연속 금메달을 딴 피겨계의 슈퍼스타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대회, ISU 그랑프리 파 이널, ISU 4대륙선수권대회 등을 석권하며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올림픽 등 일반 경쟁 대회에 더는 출전하지 않고 아이스 쇼에 전념하는 프로 선수로 전환한다며 사실상 은퇴 선언을 했다. 한편 일본 현지 매체는 하뉴가 오후 11

시11분에 결혼 발표한 배경에 관해 "최고의 숫자인 1이 네 번 겹치는 시간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고 전했다. 4일은 일본에서는 길일 중의 길일이다. 이날은 일본 민간달력에서 길흉의 기준이 되는 여섯 날인 육요(六曜-로쿠요) 중 가장 길하다는 대안(大安)이다.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한다는 날이라고 한다. 일본 매체 스포니치는 "하뉴는 과거 유튜브 채널 첫 영상을 1분 11초로 편집했고 단독 아이스쇼 첫 개최 소식도 오전 11시11분에 알렸다"고 설명했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WANNA RISE?

ALCOBAÇA Stream
DOUBLE WAVE



WANNA SPIN?

Ray SX-ZERO



RomaRo

(주)유니스코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89-5 인스코빌딩 문의전화 031)726-0085